

光日春秋

정 종 섭



이제 우리는 개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하여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

못하고 그만 두었다. 박정희대통령은 18년의 장기 독재 끝에 심복에게 피살당했고, 전두환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은 재판 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안하무인(眼下無人) 권력을 휘두르다가 국민의 비난 속에 대통령직을 떠났다. 노무현 대

대통령제 이대론 안 된다

통령은 탄핵소추까지 당하다가 임기 후에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투신하여 목숨을 끊었다. 실패한 대통령! 이는 대통령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다. 창피스럽기도 하다. 이런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낸 한국 대통령제는 과거 권위주의든 민주화 이후든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징을 보인다.

다. 둘째,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든 이기기만 하면 권력과 돈을 모두 거머쥔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이고 패자무망(敗者無望)이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고, 국가예산을 자기 사람에게 유리하게 쓰거나 자기 출신 지역에 몰아준다.

인가? 다섯째, 대통령이 된 사람은 자기가 마치 군주나 된 듯이 착각에 빠져 행동한다. 5년 임기, 국내외의 여건적 제약, 한정된 자원, 가용한 인적 자원의 한계, 자신의 능력상의 한계가 분명하다.

분이 왜곡되어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 다른 지역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죽기살기로 싸우는 것이다. 넷째, 대통령 1인의 판단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좌우된다. 입헌 민주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고, 어떤 경우에도 국민이 주인임에도 대통령의 운명이 대통령이 1인의 판단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대통령을 잘 뽑으면 성공이지만 잘못 뽑으면 망조가 든다. 도 아니면 모다. 이처럼 대통령제는 위험도(risk)가 높은 국정운영방식이다. 우리 경험상 결국 모는 나오지 않고 도가 나온 것이다. 앞으로도 모가 나올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 그래도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계속 할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경제, 국방, 외교, 복지, 교육, 노동 등등 모든 것에 완벽하기를 요구한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허상으로 이런 기대를 한다. 결국 이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기에 대통령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퇴임시에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대통령제의 현주소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견해도 있지만, 지금까지 실패한 것인데, 이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만큼 어리석다. 제도부터 고치고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순리다. 이제는 대통령제를 폐기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보고서도 길을 찾지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1인에게 강력한 권력이 집중된 국정운영방식이다. 건국기의 혼란을 수습하거나 고도 성장기의 개발독재에서는 국민들을 앞에서 이끄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가 순기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적합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단계를 넘어서면 대통령제는 여러 가지 점에서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로 칼럼

김 수 관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금 행복한다,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본다. 직업이 의사인 관계로 정성스런 진료 끝에 고통을 잊는 환자를 보면 행복하고,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간다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역설했다. 감사와 행복은 비례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매컬러프 박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하며 또한 피곤함이 없어지고, 자부심을 강화시키며 정서적 유대감을 유발하여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고 하였다.

'부족함' 속에 담긴 행복의 가치

틀림이 없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덕을 쌓고, 자연과 교육의 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서 우리들은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이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더 얻어 가는 데서 느끼는 행복의 체육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다듬어 가는 행복의 다스림에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이들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상대적인 욕심, 채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스트레스를 가지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작은 행복에 만족하고 유지하려는 자아 행복을 더 소중히 하고 있을 것이다.

째는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재산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이다. 셋째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이며, 넷째는 남과 겨루었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이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씀 씨이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부족함이다. 약간의 부족함은 적절한 긴장과 노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해물질 범벅 '사무실 공기' 이젠 신경써야 할 때

생활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요즘 직장인들의 사무실은 과연 안전한가? 직장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사무실의 공기는 생각보다 나쁘다고 한다. 얼마 전 환경단체가 조사한 발표를 들으니 불투연이라는 물질은 눈과 목을 상하게 하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도 대부분의 사무실이 선진국의 기준을 초과했다고 한다. 3년 이상 된 사무실의 벤젠 농도는 백만 명당

6.36명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미국 허용치의 6배가 넘었다는 것이다. 하루종일 근무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사무실의 공기 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하여 당국의 정기 점검이 있어야겠다. 실내에서는 창문을 열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공기가 아주 나쁘다. 호흡기 질환까지 일으키는 사무실의 공기 환경에 모두의 관심이 있어야겠다. ▲김현주·광주시 동구 산수동

기 고

이 지 수



한국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는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 1952년 시·읍·면 지방의원선거를 처음 치렀으나 제1공화국 헌법체제에서 4차례 걸쳐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법은 본래 의미가 퇴색해 버렸고, 제2공화국에서 잠시 지방자치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1956, 60년 두차례 선거를 치렀으나, 5·16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제3공화국에서 지방자치의 명맥을 잃었다.

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민주적 각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선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공직선거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정치가 있어 주민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선거공약을 기준으로 투표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거공약은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

그 후 약 30년의 시간이 흐른 1991년 3월과 6월에 실시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6월에 4개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 이후 3회에 걸친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도 주민자에게 입각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약속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약속은 스스로 실현하려고 노력이 뒤따라야 비로소 선거공약으로서 의미가 있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선거공약이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들여보면,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실현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 유권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일 것, 국가와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 실천방법 등을 명시하여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마지막으로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국민들의 책임성이다. 선거공약은 선거가 끝났고 동시에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약의 내용과 이행여부에 대해 부단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다.

'꿀벌 산업' 공익적 가치 1조원... 적극 육성해야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멸종하면 그다음은 인류가 멸종할 거라고 경고한바 있다. 벌은 그만큼 우리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중요한 생태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꿀은 영양학적으로도 원기를 회복시키고 심신이 허한 사람의 보양을 해주는 귀한 식품이다. 그런 데 후대폰 전자파나 환경 공해 등의 여파로 우리 양봉농가들은 갈수록 양봉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벌을 이용한 화분매개의 공익적 가치는 국내에서만 1조 원 규모가 있다. 그럼에도 벌꿀 및 양봉 산물 생산의 역할만을 생각하여 양봉산업의 가치는 그다지 높게 평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꿀벌 사육이 자연 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있어서 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양봉산업을 국가기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미국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영양이 146조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는 바이다. 아울러 양봉인들 모두도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고품질 양봉 산물 생산에 더욱 매진해 국제시장에서도 우리 제품이 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시 설

5월단체 별관 해법 대책위 위임 환영한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옛 전남도청 별관 문제가 종래 한 국면을 맞게 됐다. 별관 철거를 반대하며 1년 가까이 천막농성을 벌이던 5·18 단체가 전권을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에 위임하고 별관을 물리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있으면 즉각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무조건 철거를 반대한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별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위에 전권을 위임하라고 주장했다. 철거와 보존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5월단체가 비록 10인대책위가 아닌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도민대책위에 권한을 일임했지만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공은 양 대책위에 넘어갔다. 전권을 위임받은 시도민대책위는 별관 전체 건물은 살리되 1, 2층 일부를 철거이 곳에 '오월의 문'을 건립하자는 절충안을 이미 내놓은 상태다. 10인대책위도 오늘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따라서 이들 두 대책위와 시도민대책위원회가 합의한 내용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별관 강제 철거 등 물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해산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미 정상회담, 북핵 국면 전환 계기돼야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이번 회담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노력을 병행해 북핵에 '퇴로'를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비록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두 정상이 "북한은 앞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한다"며 "변화"를 역설한 것은 북한이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이제 북핵문제는 북한과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종대한 기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대상에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에 이어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까지 추가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록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강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동시에 북한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는 길도 그만큼 요원해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변화와 속도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 파산한 세계 제1의 자동차 메이커 GM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몰락한 코닥의 경우가 이를 무시했다가 당한 경우다. 때문에 모두가 한 방향으로 달릴 때 때때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주가가 한창 오를 때 조만간 거품이 꺼질 것을 알면서도 '상투'를 잡곤 한다. 노래방이 잘 된다고 하니 돈 싸고 쫓아가고 PC가 대박이라니까 '친구 따라 장에 가듯' 투자한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이다. 그렇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예 '달리는 열차'에 오르지 않거나, 탕타가도 뛰어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맹렬한 자동차의 불 속에 아닐로 그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명품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유기농 식품 같은 '슬로 푸드'가 변화와 속도를 거부한 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틈새시장을 만들어 성공했다. 최근에는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 '플라로이드'가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 탄생 60년만인 지난해 말 필름 생산마저 중단한 플라로이드를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동부 엔스헤르의 플라로이드 필름 생산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50대 '노공(老工)'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플라로이드 필름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로 똘똘했다. 전직 잘 된다고 하니 돈 싸고 쫓아가고 PC가 대박이라니까 '친구 따라 장에 가듯' 투자한 사람들이 빚더미에 앉은 이이다. 그렇다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예 '달리는 열차'에 오르지 않거나, 탕타가도 뛰어내리는 것도 방법이다. 맹렬한 자동차의 불 속에 아닐로 그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명품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이나, 유기농 식품 같은 '슬로 푸드'가 변화와 속도를 거부한 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서 틈새시장을 만들어 성공했다. 최근에는 즉석 카메라의 대명사 '플라로이드'가 유사한 시도를 하고 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